



## 오륙도 칼럼

전상수  
언론인·전 남구청장

남구는 내 마음의 고향이다. 어렸을 적 대 연초등학교에 다니던 오빠의 가을운동회는 나에게 신나는 하루였다. 운동장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찰밥과 삶은 가을 햇밤을 먹으며 즐거워하던 일들이 눈에 선하다.

남구는 오래전부터 어업과 농사, 염전을 일궈 생계를 이어오던 부산의 변두리였다. 지게골에서 문헌고개 너머 못골, 용호동, 봉계(분포, 盆浦), 섭자리, 오륙도, 돌개, 용당, 용소 등 시골티가 물씬하지만 더없이 정겨운 이름들이다.

남구는 아름답다. 황령산과 동백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이기대가 있어 공기도 맑아 살기 좋다. 황령산 인창약수터엔 이른 새벽부터 등산하고 생수 길러오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피톤치드가 많은 아름다운 이기대에도 이웃 사람들과 외지에서 오는 등산객이 끊이지 않는다.

대연동 UN기념공원, 연이는 평화공원까지 푸른 숲이 둘러싸 마음을 푸근하게 한다. 동명대 앞 커피숍에서 바라보는 황령산은 언제나 변함없이 잡지는 숲속의 미녀 형상이다. 숲이 많은 것은 남구의 축복이다.

아름다운 남구에는 순하고 착한 사람들

이 많이 산다. 시장바닥이나 길에서 큰소리 내고 싸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이기대 중앙약수터에서 기체조장에 이르기까지 10여 년간 황매화 길을 만든 김정대 사장의 노력은 대단하다. 봄이면 노란 황매화길이 등산객들의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새벽마다 청소봉투를 들고 이기대를 돌면서 쓰레기를 줍는 경동아파트에 사는 남 여사도 모범주민이다. 집계와 쓰레기봉투를 든 지 20년이 넘었다. 이 때문에 등산길은 언제나 깨끗하다. 새벽 등산팀 가운데 몇몇은 기체조를 끝낸 뒤 곧장 아랫마을 ‘수구리보리밥’집에 모인다. 김선종 초식화장, 토박이 최대복 전 용호향우회 회장을 중심으로 10여명이 커피믹스 한잔 들고 정담을 나눈다. 나라 걱정도 한다. 20여 년 하루도 빠짐이 없다. 이기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들을 것도 많아 때로는 구의회 같다.

남구에는 유명 맛집도 많다. 부경대 후문 맞은 편 초원복국. YS대통령 선거 당시 ‘우리가 남이가’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지만 복국 국물의 깔끔한 맛은 일품이다. 시어머니를 이은 대연동 ‘머느리선지국’집 맛도 보통이 넘는다. 이 집 된장찌개 맛은

## 남구청 개청 50주년 특별 기고

# 남구는 영원한 우리의 고향

그저 그만이다. 시립박물관 가는 큰 길의 ‘쌍둥이돼지국밥’도 소문난 맛집이다. 용호2동 오륙도 가는 길목 ‘합천국밥’은 2024년과 2025년 연달아 미쉐린 등급에 오른 부산의 대표 맛집이다. 맑은 국물, 기름기 뺀 수육, 직접 담근 명게 무김치, 배추김치는 끝내준다. 주말이면 인터넷을 보고 전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줄을 선다. 용호 시장은 다른 시장보다 값싸고 물건도 좋다. 남구 전통시장은 모두 깨끗하다. 이곳에서 파는 손두부 시래기국은 맛이 있어 바쁜 주부들의 일손을 덜어준다.

그러나 양지 뒤편 음식도 있는 법. 구청에서 더 챙기고 도와야 할 일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용호동에 살던 내 친구 순윤이는 바다를 유난히 좋아했다. 20여 년 전 살던 아파트를 팔고 아들이 있는 서울로 갔지만 지금은 후회마신한다. 이기대 바위 위에 앉아 노래 부르고 장자산을 오르며 바라보던 그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가 한없이 그림다고 한다. 남구는 떠난 사람들의 마음에도 살아 있는 따뜻한 고향이다.

10월 1일 남구가 개청한 지 50년. 공자는 나이 50이면 지천명(知天命)이라 했다.

하늘을 알면 인간으로서 살아갈 지혜를 갖 춘다는 뜻이다. 50년의 연륜을 쌓은 남구는 행정기관으로서도 혁신과 도약의 새로운 시발점에 선 것이다.

하지만 반세기의 남구는 너무나 변했다. 거대한 아파트 숲이 빼곡하다. 주거환경의 급변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주무관청의 책임이다. 남구에 대학이 4개나 있다. 밤이면 불비던 경성·부경대 거리는 한산해졌다. 기업이라고는 문헌금융단지와 감만동의 동국씨엠 정도가 고작이다. 대연비치에 잠깐 살았을 때다. 집 앞 나무들 너무 부경대 연구동의 불이 자정이 넘도록 꺼지지 않는 것을 볼 때면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잠자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는 교수나 젊은 조교가 있을 거라는 상상만으로도 흐뭇했다. 창업과 혁신의 무수한 스타트업이 시작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를 형성할 꿈을 심을 수는 없을까. 남구 소재 대학들이 반도체, IT, AI(인공지능)의 연구동지를 틀 수 있도록 행정과 대학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굳이 빌 게이츠 방식이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뜻 있는 구민 몇 명이라도 함께 대학연구소를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 수 없을까. 구청장이 스스럼없이 총장들을 만나 담소하며 식사도 함께 하는 그런 분위기는 미래의 씨앗을 발견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의 목표 아래 남구청은 갖가지 아이디어로 노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도 조물주가 내린 귀한 보물, 아름다운 이기대가 예술공원, 미술관이란 명목으로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부산문화회관이 남구에 들어선지 오래지만 그 이웃 상권은 여전히 쓸쓸하다. 미술관이 이기대에 들어서면 남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리란 기대가 한편으론 걱정스럽다.

“후손들이여, 선대들이 고향을 보존하라 갖은 수난을 겪었던 그 옛날을 잊지 말고 길이 가꾸고 영원토록 간직하기를 바란다.” 개성 왕씨 전통을 지키려 애썼던 용호향우회 고 왕윤호 고문이 30여 년 전 향우회지 ‘분개’에 남긴 글이 떠오르는 시점이다.

개청 50년, 50대의 젊은 오은택 구청장이 남구를 위해 어떤 숙제를 풀어낼지 기대해 본다.

## 코 아닌 입으로 숨쉬면 건강 해쳐

### 한방칼럼



숨을 잘 쉬어야 건강해진다. 호흡은 코(비강)호흡과 입(구강)호흡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숨은 코로 쉬는 것이고 입은 음식을 먹거나 말할 때 사용하고 입으로 숨쉬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 구멍이 큰 입으로 공기를 더욱 많이 마시려고 한다. 입호흡은 입안이 건조해지고 공기가 입을 통해 기관지로 바로 들어가 각종 먼지와 세균들이 바로 폐로 들어가게 된다. 반면에 코호흡은 코털과 점막을 통한 여과와 온도과 습도 조절을 하고 코의 부비강 자극으로 산화질소라는 기체가 나와 혈관을 확장시켜 산소가 더 잘 퍼지게 하고 혈압도 안정시킨다. 입으로만 숨쉬면 이런 과정을 놓치게 된다. 즉 코로 숨쉬수록 전신에 신선한 산소를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전신순환도 촉진한다.

몸이 불편한 상태가 오래되면 입으로 탄식이 자주 터지고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된다. 호흡량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로 변한다. 코호흡과 입호흡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공기 특히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차이가 크다. 코호흡은 입보다 구멍이 작아서 공기의 저항이 있어 입으로 쉬는 것보다 천천히 공기가 들어오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고 규칙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폐의 밑부분 즉 횡격막을 아래로 충분히 수축시켜 폐 전체에 공기를 꽂까지 채워 심장운동과 간의 순환 그리고 복부의 여러 장기를 운동시키게 하는 복식호흡의 효과가 생긴다. 입호흡은 얇은 호흡이 되

어 횡격막의 움직임이 적어지고 호흡이 급하고 짧아 가슴 위쪽만 움직이는 흉식호흡이 된다. 그러면 폐와 횡격막 하부장기들이 호흡의 도움을 받아 움직이는 양이 적어져 숨이 차서 가슴이 답답함과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어깨 목의 경직으로 머리 쪽 순환이 나빠지고 하부의 장기운동이 떨어져 소화불량으로 가스가 자주 발생하고 복부가 더부룩해지면 방광을 자극해 빈뇨가 발생하고 수면시 방광을 자극해 빈뇨로 인한 수면 질 저하와 전립선 자궁질환까지 전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강하게 태어난 몇몇이 아기들은 입안의 혀가 차지하는 공간이 커서 반드시 코로 호흡하면서 자동 복식호흡으로 배가 볼록볼록 잘 움직인다. 바쁘고 과로하고 어딘가 불편한 몸일수록 숨이 급해지는 흉식호흡으로 변하면서 입호흡이 많아진다. 코골이는 자면서 입으로 호흡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평소 코로 숨을 쉬는 훈련을 하자. 코로 5초간 숨을 천천히 길게 마시고 다시 5초간 천천히 길게 내쉬어보자. 생각하면 하루종일 무조건 반복해보자. 질환이 있는 환자는 진찰을 통한 치료가 우선이다. 하지만 항상 반복되는 스트레스, 흥분, 각종 통증이 있을 때 코호흡을 통한 복식호흡으로 몸이 완되고 심장은 편하게 장 활동은 부드럽게 혈액과 림프 등 전신 순환을 기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몸은 어느 정도 편안함을 찾고 각종 질환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공태욱  
생생한의원 원장



## 독자의 소리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와 지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실 ☎607-4077, 1225honey@korea.kr

## 남구와 유엔참전기념탑의 ‘50년 인연’



리는 과거 유엔묘지의 출입문이 있던 자리라고 한다. 지금의 도로가 놓이기 전에 이 출입문을 지나 흙길을 한참 걸어 올라야 지금의 UN기념공원 정문이 나왔다.

유엔참전기념탑이 한때 ‘친일 잔재’라는 엉뚱한 오해에 휘말리기도 했다. 드론으로 촬영해 수직으로 내려다 본 기념탑 사진이 논란을 일으켰다. 중앙

의 원형 청동 지구본과 16개의 방사형 기둥이 마치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연상시킨 것이다. 몇 년 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출을 규제하자 전국적으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번졌고 그 여파가 유엔참전기념탑으로 옮겨 붙은 것이다. 조각가가 일제나 일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었지만 이는 ‘기록의 부재’에 따른 홍역이었다. 아무튼 남구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유엔참전기념탑도 함께 축하할 만하면 좋겠다. 이은정(동덕대 기초교양학부 교교수)



##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고용24)와 연계

(9월 29일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청전제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대연동	노인생활지원사	1명	~ 채용시	시급 10,030원	622-1226
(주)비이커뮤니케이션	대연동	행사 이벤트 기획사	1명		월급 2,096,270원~2,700,000원	711-3722
(주)엠네트웍스	대연동	경영기획사무원	1명		월급 2,400,000원~3,000,000원	806-8251
남구사랑주간보호센터	대연동	사회복지사	1명		월급 2,100,000원	612-0678
코오큐우경성대점	대연동	주방보조원	5명		월급 3,200,000원	010-7616-9542
자이호데이케어	용호동	노인요양사	1명		월급 2,096,270원	626-3393
(주)영일	용호동	단체급식보조원	1명		시급 10,030원	010-8431-1385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대연동	복지관련종사자	1명		월급 2,200,000원	627-8521
김효준내과의원	대연동	간호조무사	1명		월급 1,985,000원~2,097,160원	628-6422
세무법인창신서면지점	문현동	회계사무원	1명		연봉 36,000,000원~39,000,000원	442-4957

유엔남구 일드림센터  
☎607-4347 ~ 8 Fax. 607-4349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일자리”입니다  
구인·구직 등록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 ■독자칼럼

## 47년 남구살이… 여전히 남구가 좋다

고향이 시골인 친구들이 초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온 얘기를 할 때면 은근히 부러웠다. 나는 도시 한복판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녀서 한 학년이 열반이 넘었기에 동창회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동네 친구들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왔다. 1982년에 남구로 이사 와 10년 쯤 지났을 무렵, 어느 날 남편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러 가지고 말했을 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남편은 “아파트를 사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경하러 가자는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아파트에 당첨되면 남구를 떠나야 하기 때문이었다. 남편과의 대화에서 유일하게 이긴 대화였다. 이유는 아이들이 마음의 고향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우리 아이들이 진학, 취업을 따라 고향을 떠나 살더라도, 언제나 집으로 돌아오면 어릴 적 친구

들을 만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얼마전 남구청에서 남구 토박이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사를 자주하는 도시 생활에서 토박이가 얼마나 될까?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구가 좋다. 주위를 둘러보면 남구가 부산에서 나라 덕을 제일 많이 보는 동네가 아닐까 생각한다. 새벽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산책한다. 대학가도 있고 멀지 않은 곳에 탁 트인 광안해수욕장도 있고, 주위 환경이 자라는 아이들 교육에 좋고, 아이들을 다 키운 지금의 삶에도 남구가 좋다.

외국에 간단 우리 아이들이 귀국하면 어릴적 친구와 선배들을 만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흐트해진다. 도시살이에 너무 자주 이사해서 아이들 추억이, 어릴적 친구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이준소(대연동 주민)

## 산타나 클라라 10월 산행을 떠나요



산악회	산행일시	산행장소	연락처
부산산오름산악회	10월 11일(토)	설악산 무박2일	010-7223-2277
남구사랑산악회	10월 12일(일)	진안 윤일암	010-8539-3999
원뿌리산악회	10월 19일(일)	밀양 능동산	010-4564-7769
산이좋아산악회	10월 26일(일)	거창 감악산	010-5699-5437

※ 산악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산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유료광고 접수 4071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oo.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